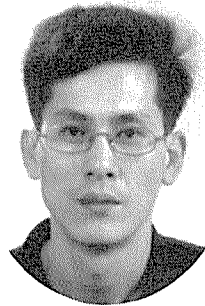


정유업계 종사자들의 선진 기술 정보 습득의 장으로

우선 석유협회보 발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성년에 도달한 시점이고 참으로 긴 세월동안 석유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글썽씨도 없는 내게 홍보팀에서 석유협회보에 실릴 원고를 부탁해왔을 때 눈 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부탁도 아니고 원고청탁은 어려운 것이어서. 그동안 가끔 석유협회보나 읽어보는 정도였지 별로 생각없이 지내왔던 터에 별로 쓸만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몇 번은 석유협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적어보기로 한다.

처음은 입사초기였다. 입사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만으로 5년이 넘었다. 1995년 말 당시 한화에너지에 입사했을 때는 호황이라 70명 남짓한 동기들이 한꺼번에 입사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지역으로의 해외연수기회가 주어졌다. IMF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고도 경제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 너무 꿈같은 기회였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유럽을 선택했는데 미국을 연수지역으로 선택한 나를 비롯한 세명의 동기는 그저 새로운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우리는 관광버스를 타고 말로만 듣던 금문교, 골든게이트파크, 트윈픽스 등을 관광하고 렌트카로 알카트라즈 섬, 버클리대학을 구경할 수 있



손동하
<인천정유 품질보증팀 대리>

었다. 애리조나 그랜드캐년도 여행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과 광활함으로 세상이 탁 트인 느낌이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다니, 한국이라는 좁은 곳에서 부대끼며 살다가 온 우리에게 기가 찰 정도로 넓은 곳이었다. 그 다음은 환락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이곳 카지노에서는 슬롯머신을 만져볼 수 있었고 유명한 미라지 호텔에서 지크프리드앤로이의 환상적인 마술쇼도 구경했다.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할리우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관광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을 보냈다. 미국여행동안 놀란 일이 몇가지 있었다.

첫째 기름값이 너무 싸다. 1갈론을 주유하는데 단돈 1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환율이 900원이 채

되지 않았으니 리터로는 대략 200원 정도였다. 국내 휘발유값이 650원 정도였는데 세배 정도는 싼 것 같다. 물론 지금은 더 격차가 컸을테지만.

둘째, 훌륭한 도로여건. 지도하나만으로도 이정표로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고 쪽 뺨은 길로 여행하면서 고속도로에서는 엑셀을 밟기 귀찮아 크루즈 기능(사용하면 엑셀이 고정되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동일한 속력을 유지함)으로 마음껏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다.

셋째, 다양한 차종. 여행하면서 거의 같은 차종의 자동차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차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회사에서 보내준 연수 인지라 우리에게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관광하기에도 바빴던 터라 미국에서 보고서 자료로 생각한 건 기껏 하나였다. 우리는 지금에서야 공장단위의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미국은 그 당시에도 주유소 단위의 규제가 엄격했던지 휘발유 주입구에 증기의 휘발을 막을 수 있도록 고무로 된 커버가 붙어있었다. 그 부분에 감명받고 우리 회사도 바로 실시하자고 제안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신입사원다운 무지였다고나 할까. 그러나 그 정도로 보고서가 될 리 없었다. 구체적으로 석유업계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고 그러다보니 세계 각국의 정제량, 소비량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곳이 석유협회였고 어렵사리 부탁을 했더니 의외로 쉽게 자료를 보내주고 무사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도움을 받고서도 당시에는 제대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담당자들을 비롯한 석유협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입사초기 석유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석유협회에서 발간한 '석유제품의 규격과 품질'이라는 책이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석유제품특성과 시험항목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는데 정유사별 모든 제품의 규격도 실려 있어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이 책을 받아보고 싶어 알아보니 석유협회에서 각 정유사로 일정 부수를 보내주는데 공장 실무부서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책을 얻고 싶다고 담당자에게 부탁했더니 우편으로 송부해줬다. 그 후에도 한번더 같은 방법으로 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 도움을 받고서도 당시에는 제대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담당자들을 비롯한 석유협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를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한다. 남보다 앞선 정보를 가진 자만이 경쟁에서 앞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유회사를 비롯하여 모든 회사들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원가절감, 생산성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시장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므로 석유협회보는 모든 정유업계 종사자들이 선진기술정보를 통해 경쟁, 발전해갈 수 있도록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세계 각국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그 역할에 미흡했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더욱 다양한 내용들로 충실한 석유협회가 되기를 바란다.